

베트남 사회자본의 변화: 가족의 가치와 집단내신뢰의 강화

백 용 훈*

요 약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VS) 5차(2006년)와 7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제곱검정과 T-검정을 통해 베트남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두 도시,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사회자본의 구성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베트남에서 가족의 가치와 집단내신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우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인 유대를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양한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공식적인 유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경우 집단외신뢰 수준보다 집단내신뢰,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하노이가 호찌민시보다 집단외신뢰 수준이 높는데, 호찌민시의 경우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에서 당과 국가의 정책과 법률, 지시 등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가족의 가치가 문화적 인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가족운동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제어: 베트남, 사회적 관계, 신뢰, 가족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 beakyh@hanmail.net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자본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Szreter and Woolcock 2004), 민주주의와 경제발전(Fukuyama 2001), 정치 제도의 효율성 촉진(Kawachi, Kennedy and Glass 1998; Putnam 1993), 개인의 시민적인 행동(Son and Lin 2008)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사회구성원들의 접촉, 특정 그룹 내 상호이익의 기준과 협력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취업기회, 소득, 빈곤 감소, 농촌 주민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 촉진 등 이익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해왔다(Zhang and Li 2003; Peng 2004; Cleaver 2005).

퍼트남(Putnam 1993, 76, 176)은 정치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자발적 결사체에서 발견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등을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사회자본은 상호이익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적, 조직적 바탕이 된다고 강조되고 있다(배정한 2003). 많은 선행연구들이 도이머이(Đôi Múi) 이후 베트남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주목해왔지만(Tran and Heo 2008), 그 이면에 내재된 사회적 구성의 맥락에 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정한 시기에 걸친 베트남의 사회자본에 관한 분석은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와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발전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작은 두 가지 현실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사회조사인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다. WVS 조사는 1차(1981년)부터 7차(2020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베트남은 WVS 4차(2001년), 5차(2006년), 7차(2020년) 조사에만 참여했다. 본 연구는 5차와 7차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약 15년의 시기에 걸친 사회자본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볼 필요성의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이므로 닫힌 연결망보다는 열린 연결망의 요소가 강화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두 시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비교 분석은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예 따라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즉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사회자본의 양상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베트남에 보다 관심이 증대되면서 북부와 남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 혹은 서로 다른 지역성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지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설명은 발견하기 어렵다. 5차와 7차 자료에서 두 도시에 대한 통계분석은 두 지역의 발전에 따른 지역성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0년 이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베트남은 연간 6~7%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성장에 관한 지표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시기(2020년과 2021년)를 제외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베트남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6.6%를 기록했다. 다른 하나는 북부와 남부를 각각 대표하는 두 도시, 즉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사회자본의 양상과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시가 보여준 발전의 격차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현저히 줄었다. 2022년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각각 8.89%와 9.03%를 기록했고(Nhân Dân 2022/12/28), 202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소득은 각각 642만동과 639만 동(VND)으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ảo Ngọc 2024).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다. 특히 농촌 토지 이용, 기업의 자본 동원, 사회적 신뢰의 기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Le 2008; Nguyen 2011, Trần et al. 2023).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해 조사했을 뿐 베트남의 맥락에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그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하다. 달튼과 옹(Dalton and Ong 2005)의 연구는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사회자본을 분석했지만 20년 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수준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Nguyen and Le 2021).

이상과 같은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와 베트남의 현재 국가/지역별 발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두 시기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과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 변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에 관한 시기별(2006년과 2020년)/지역별(하노이와 호찌민시) 카이제곱 검정과 T-검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통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시기별/지역별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결론과 함의,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으로 구분된다. 사회자본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개념 정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자본을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 린(Lin 2002)은 사회자본을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된 자원”으로 구성된다고 간주했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자본이 조정된 행동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참여로 구분했다. 하나는 이웃 조직, 합창단, 협동조합, 스포츠클럽 등의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 정치 등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변환하여 사회자본의 영향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그 정도는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접촉의 빈도 등을 기준으로 네트워크의 정도를 강한 유대(strong ties)와 약한 유대(weak ties)로 구분하고 이것이 서로 다른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강한 유대는 감정의 강도와 친밀감을 강조하는 연결을 의미하고, 약한 유대는 친밀감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의미한다(Granovetter 1973). 동질적인 개인이나 유사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속한 네트워크는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을, 반대로 비동질적인 개인과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는 연결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에 해당한다(Szreter and Woolcock 2004).

집단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네트워크와 비공식 네트워크로 구분된다. 공식적 네트워크는 정당, 시민 협회, 교회,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되고 확립된 그룹을 통해 사람들이 더 넓은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Putnam 2000). 비공식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한 개인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한수진·나기환 2015). 현대 베트남에서 사회조직은 베트남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이라는 상위 조직을 통해 베트남 국가의 통제를 받고 동원되고 있는 조직(Thayer 2008)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도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공식네트워크에 대한 맥락을 적용한 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동원된 조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전문단체, 정당 등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환경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 등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단체에 해당한다.

한편, 뉴튼(Newton 2001)은 퍼트남의 사회자본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신뢰의 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는 사회적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상업 거래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르면 신뢰 연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전제 조건(a prerequisite for routine interactions, Zucker 1986)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안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fundamental factors that stabilize social networks, Luhmann 2018)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을 강화한다(Dragolov et al. 2018). 더 큰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불안을 덜어주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간주된다(Abbot and Freeth 2008). 즉, 사회적 신뢰는 사회 전체의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고 조밀한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의 번영에 기여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신뢰는 사회자본의 인지적 차원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타인에게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 혹은 믿음으로 간주된다(Delhey and Newton 2005, 311; Glanville and Paxton 2013, 2). 후쿠야마는 사회적 신뢰를 개인적 신뢰, 가족과 친구와 같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낯선 사람과의 일반화된 신뢰로 구분한다(Uslander 2002, 34).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구성원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은 공유된 의식을 촉진시키고 사람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를 생산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된다. 긴밀한 관계에서 더 자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신뢰감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Glanville and Paxton 2013). 또한, 조직 구성원 간의 참여와 상호작용은 조직의 사회구조에 내재된 규범의 생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협력의 예측가능성과 조직에 대한 신뢰 확산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는 일반적 신뢰, 집단내신뢰, 집단외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내신뢰는 친척, 친구, 지인 등 친숙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구성된다. 반면, 집단외신뢰는 낯선 사람이나 국적, 종교 등 집단 외부의 정체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Delhey and Welzel 2012, 47).

베트남 내에서는 최근 연구 그룹과 교육, 문화관광, 중소기업 부문을 대상으로 협력의 촉진, 지속가능발전,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에 사회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질적 및 양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응우옌티흐영장(Nguyễn Thị Hương Giang 2019)은 하노이 국립대학교(VNU)의 연구 그룹(NNCM)의 사례를 통해 연구 그룹의 과학 기술(S&T) 활동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논의하고 과학 분야의 협력은 개인 간의 협력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을 통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도티히엔(Đỗ Thị Hiện 2021)은 사회자본이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 특히 교육에 기여하는 문화적 요소 중 하나이며 인력 양성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자본, 물질적, 인적자본 외에 사회자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경제,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기반관광(CBT)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딩과 응우옌(Dinh and Nguyễn 2021)은 주민, 지역관리 공무원, 비정부단체 대표 등 총 2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개발의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관광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인센티브에 따른 수동적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관광 개발에 대한 현재 사람들의 참여 수준은 자신의 사회문화, 즉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상호 규범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응우옌티귀(Nguyễn Thị Quý 2020)는 베트남 5,060개의 중소기업 성과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했다. 로짓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무 경험과 업계 내외의 다른 기업과의 연결이 비즈니스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특별한 경제적 연계를 구축하면 기업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은 고객 요구에 대한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일종의 만병 통치약처럼 이해되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에 관한 보다 세분화된 구분, 조작적 정의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

하여 사회자본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와 신뢰에 관한 논의에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 구성의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주목하거나 신뢰에 주목한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지만, 네트워크와 신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국가 단위 이외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한 분석 혹은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른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과 같은 빠른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며 일반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지역성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베트남에서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연구는 그간 주로 질적 연구에 치중해왔는데 이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베트남을 관찰하여 질적연구를 통해 알 수 없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Ⅲ. 자료, 변수, 분석 방법

1.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는 WVS 5차 및 7차 웨이브의 베트남 자료를 활용한다. WVS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특히 지역별 다단계 계층화 표집(multi-stage territorial stratified selection)을 기반으로 한다. 5차와 7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첫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 동안 베트남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시기별 변화에 관한 확인과 함께 북부와 남부를 각각 대표하는 두 대도시, 즉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사회자본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베트남의 5차 조사와 7차 조사는 각각 2005년 10월~ 11월,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표본 수집이 이루어졌다. 표본의 크기는 각각 1,495명(하노이 120명, 호찌민시 184명)과 1,200명(하노이 101명, 호찌민시 100명)이다. 표본 수집은 다단계표집(multi stage sampling)과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을 결합한 층화다단계표집(stratified multi-stages sampl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층화표집은 국가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라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했다. 대표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베트남을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내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터뷰를 실시할 2개의 성(provinces)을 선택했다. 가구 선택의 경우 오른손 법칙의 접촉에 따랐다. 인터뷰는 가구 혹은 개인 거주지에서 진행되었다. 선택된 가구 내에서는 18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2. 주요 변수, 측정, 분석 방법

(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비공식과 공식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와의 접촉 빈도를 통해 알 수 있지만, WVS 5차와 7차 설문지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을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의 대리 변수로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일상 생활에서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 접촉이 더 많을 것으로 가정했다. 설문지에서 응답은 ‘1-매우 중요하다’, ‘2-대체로 중요하다’, ‘3-거의 중요하지 않다’, ‘4-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하여 ‘1-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4-매우 중요하다'의 순서로 재코딩하였다.

공식 네트워크의 경우 WVS 5차와 7차 자료에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회원 가입 여부와 활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종교나 교회 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단체',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활동', '노동조합', '정당', '환경단체', '전문가협회', '인권 혹은 자선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단체' 등이다. '계 모임'과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7차 자료에만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설문지는 각종 단체의 회원 인지 여부, 회원이라면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0-회원 아님, 1-소극적 회원, 2-적극적 회원), '1-비회원'과 '2-회원'으로 구분하여 재코딩했다.

(2) 신뢰

신뢰는 일반적 신뢰와 집단내신뢰, 그리고 집단외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WVS 조사에서 일반적 신뢰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된다. 이 개념은 광범위한 수준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답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 '2-조심해야 한다', 즉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코딩된다. 분석 결과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하여 측정값을 '1-조심해야 한다', '2-대부분 믿을 수 있다'로 재코딩했다.

집단내신뢰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된다. 답변은 '1-매우 신뢰한다', '2-어느 정도 신뢰한다', '3-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이며, 이를 역으로 재코딩했다. 집단외신뢰의 경우에는 세 가지 항목, 즉 처음 만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이다. '1-완전히 신뢰한다'부터 '4-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

지의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이 변수 역시 역으로 재코딩했다. 이외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경우 성별(1-여성, 2-남성)과 연령(18세부터 88세까지)으로 구성 및 측정했다. 아래 <표 1>은 WVS 5차와 7차 베트남 자료의 성별과 연령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수: 5차와 7차 자료

n(%)		5차(2006년)			7차(2020년)		
		베트남 전체	하노이	호찌민시	베트남 전체	하노이	호찌민시
전체		1495(100)	120(100)	185(100)	1200(100)	101(100)	100(100)
성별	남성	767(51.3)	49(40.8)	68(36.8)	545(45.4)	43(42.6)	42(42.0)
	여성	728(48.7)	71(59.2)	117(63.2)	655(54.6)	58(57.4)	58(58.0)
연령	10대	83(5.5)	4(3.3)	21(11.4)	54(4.5)	2(2.0)	6(6.0)
	20대	358(23.9)	37(30.9)	42(22.7)	314(26.1)	36(35.6)	30(30.0)
	30대	342(22.9)	22(18.3)	37(20.0)	356(29.7)	32(31.7)	25(25.0)
	40대	305(20.4)	20(16.7)	35(18.9)	239(19.9)	24(23.8)	21(21.0)
	50대	184(12.3)	13(10.8)	21(11.3)	164(13.7)	6(5.9)	10(10.0)
	60대	128(8.6)	12(10.0)	14(7.6)	67(5.5)	1(1.0)	8(8.0)
	70대	82(5.5)	12(10.0)	13(7.0)	6(0.6)	0(0.0)	0(0.0)
	80대	13(0.9)	0(0.0)	2(1.1)	0(0.0)	0(0.0)	0(0.0)

주: 필자 작성.

이상의 변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두 가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5차 자료와 7차 자료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분석은 각 변수의 범주별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카이제곱검정을,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비교 분석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IV. 분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1. 사회적 네트워크

아래 <표 2>는 베트남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중 비공식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된 가족, 친구, 직장,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5차와 7차 자료를 비교해보면 응답자들은 여전히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5차 99.7%, 7차 99.4%). 7차 자료에서 ‘대체로 중요하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의 순서를 살펴보면 가족(99.4%), 직장(95.2%), 친구(8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과 직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한 반면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가족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5.5% 포인트 증가했고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5.8% 포인트 감소했다. 직장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8.8% 포인트 증가했고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2.7% 포인트 감소했다. 친구와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차와 7차 자료에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부정 응답(‘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거의 중요하지 않다’ 58.9%)의 비중이 긍정 응답(‘대체로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41.1%)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이머이(Đôi Mới) 이후 현대화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높은 수준의 결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동료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측정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5차와 7차 자료 카이제곱검정 결과

n %		가족		친구		직장		종교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3 (0,3)	2 (0,1)	11 (0,9)	11 (0,7)	13 (1,1)	290 (19,6)	205 (17,1)
거의 중요하지 않음		5 (0,3)	4 (0,3)	228 (15,3)	133 (11,1)	151 (10,2)	44 (3,7)	704 (47,6)	502 (41,8)
대체로 중요함		275 (18,4)	31 (2,6)	933 (62,5)	790 (65,8)	712 (48,0)	304 (25,3)	378 (25,6)	346 (28,8)
매우 중요함		1214 (81,3)	1162 (96,8)	330 (22,1)	266 (22,2)	610 (41,1)	839 (69,9)	106 (7,2)	147 (12,3)
합계	n	1494	1200	1493	1200	1484	1200	1478	12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카이제곱		168,7***		18,3***		231,5***		27,9***	
df		3		3		3		3	
Cramer' s V		0,25***		0,08***		0,29***		0,10***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아래 〈표 3〉은 5차 자료와 7차 자료 중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기준으로 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호찌민시보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 친구, 직장을 여전히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자료와 7차 자료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가족과 친구에 대한 중요성의 경우 호찌민시가 하노이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직장에 대한 중요성의 경우에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중요성의 경우 5차 자료에서는 하노이시가 호찌민시에 비해 높았으나 7차 자료에서는 호찌민시의 평균치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5차와 7차 자료, 하노이와 호찌민시 T-검정

평균	5차				7차			
	하노이 n=120		호찌민시 n=184	t	하노이 n=101		호찌민시 n=100	t
가족	3.93	>	3.69	4.934***	3.99	>	3.95	1.441**
친구	3.14	>	2.73	4.256*	3.22	>	2.93	3.184***
직장	3.18	>	2.95	1.191*	3.87	>	3.67	3.205***
종교	2.20	>	2.11	0.860*	2.34	<	2.38	-0.336** *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아래 〈표 4〉는 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즉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7차 자료의 분석 결과에 주목해보면,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 가운데 교회, 종교 단체(회원 12.1%, 비회원 87.9%)만 두 자릿수의 회원 가입 비중을, 다른 단체의 경우 한 자릿수의 비중을 보여줄 정도로 공식적인 단체 가입을 통한 네트워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차와 7차 자료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교회, 종교 단체(5차 11.6%, 7차 12.1%)와 소비자단체(5차 3.4%, 7차 5.5%)만 증가했고, 다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감소한 단체는 전문가조직(12.3% 포인트 감소)과 정당(11.7% 포인트 감소)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당 가입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므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분석 결과 정당에 가입한 응답자의 수는 5차에 비해 7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샘플링 표본 선정 시에 공산당에 가입한 응답자가 적게 표집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4〉 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5차와 7차 자료 카이제곱검정 결과

n %		교회, 종교 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단체		예술, 음악, 교육 단체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비회원		1321 (88.4)	1055 (87.9)	1281 (85.7)	1117 (93.1)	1356 (90.7)	1138 (94.8)		
회원		174 (11.6)	145 (12.1)	214 (14.3)	83 (6.9)	139 (9.3)	62 (5.2)		
합계	n	1495	1200	1495	1200	1495	1200		
	%	100	100	100	100	100	100		
카이제곱		0.1		37.1***		16.5***			
df		1		1		1			
Cramer' s V		0.01		0.12***		0.08***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n %		노동조합		정당		전문가조직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비회원		1323 (88.5)	1139 (94.9)	1256 (84.0)	1149 (95.8)	1261 (84.3)	1159 (96.6)		
회원		172 (11.5)	61 (5.1)	239 (16.0)	51 (4.3)	234 (15.7)	41 (3.4)		
합계	n	1495	1200	1495	1200	1495	1200		
	%	100	100	100	100	100	100		
카이제곱		34.8***		95.5***		108.8***			
df		1		1		1			
Cramer' s V		0.11***		0.19***		0.21***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n %		환경단체		자선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비회원		1335 (89,3)	1156 (96,3)	1265 (84,6)	1087 (90,6)	1444 (96,6)	1134 (94,5)	1064 (71,2)	1126 (93,8)
회원		160 (10,7)	44 (3,7)	230 (15,4)	113 (9,4)	51 (3,4)	66 (5,5)	431 (28,8)	74 (6,2)
합계	n	1495	1200	1495	1200	1495	1200	1495	12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카이제곱		47,1***		21,3***		7,0**		224,5***	
df		1		1		1		1	
Cramer' s V		0.13***		0,09***		0,05**		0.29***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2. 사회적 신뢰

아래 <표 5>는 일반적 신뢰의 측정 결과다. 5차 자료의 경우 ‘조심해야 한다’와 ‘대부분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47.9%와 52.1%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7차 자료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72.3%로 ‘대부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에 비해 베트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일반적 신뢰: 5차와 7차 자료 카이제곱검정 결과

n (%)		일반적 신뢰	
		5차	7차
조심해야 한다		699 (47.9)	868 (72.3)
대부분 믿을 수 있다		761 (52.1)	332 (27.7)
합계	n	1460	1200
	%	100	100
카이제곱		162.7***	
df		1	
Cramer' s V		0.25***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아래 〈표 6〉은 5차 자료와 7차 자료에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기준으로 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신뢰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5차와 7차 모두 호찌민시에 비해 하노이의 평균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두 도시 모두 5차에 비해 7차 자료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의 경우 0.11% 포인트 감소했고, 호찌민시의 경우 0.3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개방, 발전 등 해외자본 유치와 외국인과의 접촉 그리고 다양한 이주민들의 이입의 영향 등 외부와의 접촉이 보다 빈번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보다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일반적 신뢰: 5차와 7차 자료, 하노이와 호찌민시 T-검정

평균	5차				7차			
	하노이 n=120		호찌민시 n=158	t	하노이 n=101		호찌민 시 n=100	t
일반적 신뢰	1.63	>	1.46	2.724**	1.54	>	1.15	6.417***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내신뢰와 그렇지 않은 집단 외신뢰의 경우는 어떠한 양상을 보여줄까? 아래 〈표 7〉은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5차 자료와 7차 자료를 비교한 분석결과다. 주목할 점은 집단내신뢰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5차 자료보다 7차 자료에서 더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가족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자료와 7차 자료 모두 99.6%가 가족을 신뢰(‘어느정도 신뢰함’, ‘매우 신뢰함’) 하며 특히 7차 자료의 경우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수준(93.8%)을 보여주었다. 이웃에 대한 신뢰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각각 90% 이상 및 8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이웃을 포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집단내신뢰: 5차와 7차 자료 카이제곱검정

n (%)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0.1)	2 (0.2)	4 (0.3)	28 (2.3)	16 (1.1)	25 (2.1)
별로 신뢰하지 않음		5 (0.3)	3 (0.3)	140 (9.4)	75 (6.3)	364 (24.8)	181 (15.1)
어느정도 신뢰함		171 (11.5)	69 (5.8)	902 (60.7)	960 (80.0)	914 (62.3)	923 (76.9)
매우 신뢰함		1310 (88.1)	1126 (93.8)	441 (29.7)	137 (11.4)	174 (11.9)	71 (5.9)
합계	n	1487	1200	1487	1200	1468	1200
	%	100	100	100	100	100	100
카이제곱		27.7***		170.6***		80.7***	
df		3		3		3	
Cramer' s V		0.10***		0.25***		0.17***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아래 〈표 8〉은 5차 자료와 7차 자료에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기준으로 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내신뢰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5차 자료의 경우 호찌민시에 비해 하노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차 자료에서는 두 도시 간의 비교 분석 결과 평균값이 유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신뢰 정도는 각각 3.94와 3.91로 유사한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는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내신뢰의 수준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은 하노이와 호찌민시 모두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하노이의 경우 감소, 호찌민시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집단내신뢰: 5차와 7차 자료, 하노이와 호찌민시 T-검정

평균 (n)	5차				7차			
	하노이		호찌민시	t	하노이		호찌민시	t
가족	3.95 (120)	>	3.74 (180)	4.747***	3.94 (101)	≐	3.91 (100)	0.823
이웃	3.18 (120)	>	3.06 (179)	1.610***	2.90 (101)	≐	2.86 (100)	0.598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2.91 (120)	>	2.75 (166)	2.428*	2.78 (101)	≐	2.90 (100)	-1.697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아래 〈표 9〉는 처음 만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5차 자료와 7차 자료를 비교한 분석결과다. 집단외신뢰 수준은 앞서 살펴본 집단내신뢰의 수준과 비교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는 5차 자료 22.0%와 7차 자료 30.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5차 자료 27.9%, 7차 자료 40.4%이며, 다른 국적에 대한 신뢰의 경우 5차 자료 17.9%와 7차 자료 34.3%로 나타났다.

〈표 9〉 집단외신뢰: 5차와 7차 자료, 하노이와 호찌민시 T-검정

n %		처음 만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5차	7차	5차	7차	5차	7차
전혀 신뢰하지 않음		181 (12.6)	226 (18.8)	188 (13.9)	171 (14.2)	250 (18.9)	235 (19.6)
별로 신뢰하지 않음		934 (65.3)	604 (50.3)	789 (58.2)	545 (45.4)	838 (63.2)	554 (46.2)
어느정도 신뢰함		301 (21.0)	361 (30.1)	365 (26.9)	475 (39.6)	226 (17.0)	403 (33.6)
매우 신뢰함		15 (1.0)	9 (0.8)	13 (1.0)	9 (0.8)	12 (0.9)	8 (0.7)
합계	n	1431	1200	1355	1200	1326	1200
	%	100	100	100	100	100	100
카이제곱		62.9***		51.4***		103.0***	
df		3		3		3	
Cramer' s V		0.16***		0.14***		0.20***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아래 〈표 10〉은 5차 자료와 7차 자료에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기준으로 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외신뢰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5차와 7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하노이의 경우 5차에 비해 7차 자료의 평균값이 높은 반면, 호찌민시의 경우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모두 5차에 비해 7차의 평균값이 증가했고 5차와 7차 모두 하노이가 호찌민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7차 자료의 두 도시간 비교검정 가운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호찌민시에 비해 하노이시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집단외신뢰: 5차와 7차 자료, 하노이와 호찌민시 T-검정

평균 (n)	5차				7차			
	하노이		호찌민시	t	하노이		호찌민시	t
처음 만난 사람	2.03 (119)	≡	2.14 (142)	-1.842	2.25 (101)	≡	2.04 (100)	2.204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2.14 (116)	≡	2.06 (127)	1.121	2.39 (101)	>	2.34 (100)	0.508**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2.06 (116)	≡	2.02 (128)	0.686	2.35 (101)	>	2.24 (100)	1.092**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주: 필자 작성.

V. 논의: 가족과 집단내신뢰를 중심으로

통계분석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식이 15년 전에 비해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앞선 〈표 2〉와 〈표 7〉에서 5차보다 7차 자료의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집단내 신뢰에서 가족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의 경우 하노이는 2006년과 2020년의 평균값이 각각 3.93과 3.99로 유사한데 비해 호찌민시는 평균값이 각각 3.69에서 3.95로 크게 증가했다. 보다 가족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표 2〉와 〈표 4〉의 분석 결과를 대조해보면, 가족과 직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중요성은 증가한 반면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2019년 ‘현재 베트남 가족의 기본적인 가치(Những giá trị cơ bản của gia đình Việt Nam hiện nay)’에 관한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베트남에서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가족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다음으로 건강, 취업, 소득, 친구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 수

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가족 역시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hanh Giang 2023). “나라를 잃으면 집이 사라진다(nước mất thì nhà tan)”라는 베트남 속담이 있다.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족의 가치와 인식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양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족 형태의 변모와 가족 관계의 발전을 추적해온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과 가구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기든스 & 서튼 2013, 420-428).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라 사회적 변화가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집단내신뢰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베트남에서 가족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과 더 나아가 민족의 전통을 보존하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Lê and Nguyễn 2023; Trần Hiên 2024). 가족에 대한 가치 정립은 당과 국가의 주요 보고와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가족은 도이머이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의 기초이자 세 포로 간주하며, 가족에 대한 당의 관점과 국가 정책은 문화가족건설 운동(phong trào xây dựng gia đình văn hóa)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족에 대한 메시지는 국가의 개혁이 시작되는 시기인 1986년부터 강조되어 왔다. 제6차 당대회 의결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새로운 체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인민의 건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Gia đình là tế bào của xã hội, có vai trò rất quan trọng trong sự nghiệp xây dựng chế độ mới, nền kinh tế mới, con người mới)”라고

명시하며 새로운 문화가족 건설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당, 국가, 대중조직이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05, 773-774).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이념을 이어받아 사회주의 전환기 국가 건설 강령을 채택했는데, 신인간(Con người mới)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의 성격을 교육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족-학교-사회의 삼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07).

이후 1996년 제8차 당대회 의결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더 나아가 각 세부 분야에서 행복한 가정 건설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 방침을 표명했다. 민족 정체성이 담긴 선진 베트남 문화 구축에 관한 1998년 제5차 중앙회의 의결에서는 “베트남 가족의 올바른 윤리를 보존하고 장려하며, 부모의 모범적인 역할과 문화가족 건설” 등을 강조했다. 가족은 민족의 좋은 문화적 가치관이 계승되는 곳이며, 외부의 문화적 폐해가 베트남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견고한 요새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15a). 이후 2001년 제9차 당대회에서는 사회경제발전, 인격 형성, 개인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했다(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16).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영향, 가족 내 일부 문화적 관계의 악화, 가족 및 사회적 윤리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여 가족이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한편, 2001년 5월 4일 베트남 수상은 매년 6월 28일을 베트남 가족의 날(Ngày Gia đình Việt Nam)로 지정하는 결정(72/2001/QĐ-TTg)에 서명했다. 이후 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활동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002년에는 인구가족아동위원회 산하에 가족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을 설립했고, 정부는 인구, 가족, 아동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를 규제하는 시령령(94/2002/ND-CP)을 발표했다. 공산당 사무국은 처음으로 국가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간에

가족 만들기의 목표와 해결책을 언급하는 가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시(49-CT/TW, 2005/02/21)를 발표했다(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15b). 정부 수상은 2007년에 인구, 가족, 아동위원회를 해산하고 이를 관련 부처로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결정(1001/QĐ-TTg)에 서명하면서 국가의 가족관리 기능과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 문화가 국가 문화의 일부로 간주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16년 제12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는 “문화와 인간의 건설 및 발전(Xây dựng, phát triển văn hóa, con người)”이라는 내용에서 가족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가족 발전 전략 실현의 임무를 제시했다. 처음으로 베트남 가족 발전 전략을 실행하는 임무가 당대회 문서에 포함되었고 동시에 베트남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명화된(văn minh)” 기준을 추가했다(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2016). 2021년 가족의 날 20주년을 맞이하여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국가 주석은 “가족은 항상 사회경제적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력에 기여하는 견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푸근한, 행복한, 진보적인, 문명화된 베트남 가족 건설(Xây dựng gia đình Việt Nam ấm no, hạnh phúc, tiến bộ và văn minh)”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베트남 가족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 강조했다.¹⁾

이상과 같은 가족에 대한 정책 혹은 메시지들은 문화가족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이 도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의 맥락 속에 놓여진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문화가족운동은 당과 국가의 대응과 사회제도의 이념적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를 바탕으로

1)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가족국(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 VỤ GIA ĐÌNH). “Quan điểm của Đảng, cơ chế chính sách của Nhà nước về gia đình.” <https://giadinh.bvhttdl.gov.vn/quan-diem-cua-dang-co-che-chinh-sach-cua-nha-nuoc-ve-gia-dinh/>(검색일: 2024. 12. 05).

등장했다(심주형 2023, 105-106). 문화가족운동은 한편으로는 가족문화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존중과 관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가족이라는 사회의 건강한 세포를 기초적인 사회조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정치적 선전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가족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²⁾ 세계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이주 현상으로 인하여 국가는 지역공동체나 국가 기관 하위에 속하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통제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고 가족 단위로 그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WVS 5차(2006년)과 7차(2020년)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의 사회자본의 구성과 그 특징을 지난 15년 동안의 변화와 함께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두 대도시, 즉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사회자본의 구성과 그 특징을 비교 검토하였다. 두 시기의 자료 분석을 통해 베트남에서는 사회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가치관의 변화와는 달리 사회의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조직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높은 수준의 결속을 유지하고

2)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가족국(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 VỤ GI A ĐÌNH). “Những vấn đề đặt ra về chính sách pháp luật đối với văn hóa gia đình Việt Nam.” <https://giadinh.bvhttdl.gov.vn/nhung-van-de-dat-ra-ve-chinh-sach-phap-luat-doi-voi-van-hoa-gia-dinh-viet-nam/>(검색일: 2024. 11. 3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 네트워크의 경우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인구의 비중이 현저히 적으며 시간이 갈수록 각종 단체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여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시의 경우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과거에 비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치는 바로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집단내신뢰”이다.

7차 자료 조사의 시점이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는 1월 23일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1월 30일에 전염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백용훈 2020, 63-64). 즉, 조사 시기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국경 폐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 봉쇄 등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이행되기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부의 위협으로 인한 가족 결속의 강화에 대한 가능성은 통제된다.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전자제품을 위한 광고 영상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자주 등장하고, 가족의 건강, 평안, 행복을 위한 소재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직접적인 구매 행위와 매출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베트남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시사한다.

국가와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인-가족-마을-국가의 유기적인 관계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가족의 가치가 문화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정책과 법률, 지시 등을 통한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 문화가족의 제도화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급속한 해체 속도를 둔화시키는 최소한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의 강력한 봉쇄와 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심주형 2003, 116).

가족에 대한 가치와 제도화에 관한 실천적 양상의 한 사례로 하노이(Ha Noi)에서는 문화가족 건설 운동이 작은 마을과 주거 집단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각 가족은 문명화된 하노이 사람들을 구축하는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문화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가정, 지역사회, 축제, 결혼식, 장례식, 가족 행사 등에서의 ‘금연’을 추가했는데, 이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보고했다(Thanh Giang 2023). 문화적 가치의 확산이 제도적 이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베트남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Nguyen and Le, 2021)는 정당, 노동조합 등의 국가로부터 동원된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면에 환경단체, 자선단체, 종교 단체 등 상대적으로 덜 동원되고 자율성을 띠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동원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깨닫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안전하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덜 동원되고 자율성을 띤 단체의 경우 베트남에 부과된 정치이데올로기 사이의 갈등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불신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베트남에서 다양한 결사체의 가입 혹은 활동을 통한 공식 네트워크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 제도화를 통해 오히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이 과연 국가나 사회의 발전, 특히 더 큰 수준에서의 공동체의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WVS 5차(2006년)와 7차(2020년) 자료를 기반으로 두 시기를 비교 분석했다. 사회는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시기 사이에 다양한 변동 요인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자료 접근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양적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것에 그쳤다. 비록 두 시기, 즉 2006년과 2020년의 단적인 비교 수준에 머물렀지만 본 연구는 베트남 사회의 변화가 현대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 변화의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물론, 정치적 제도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적 영역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하여 베트남 대중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한 질적 연구를 필요로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투 고 일 : 2024. 12. 14

심 사 완 료 일 : 2024. 12. 30

게 재 확 정 일 : 2025. 01. 15

참고문헌

- 기든스, 앤서니·필립 서튼. 2013. 『현대사회학』. 김미숙, 김용학 등 역. 을류문화사.
- 배정환. 2003. “러시아의 사회자본과 비공식 네트워크: 노보시비르스크 주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43(3): 429-453.
- 백용훈. 2020. “베트남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0(4): 49-103.
-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가족국(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 Vụ Gia Đình). “Những vấn đề đặt ra về chính sách pháp luật đối với văn hóa gia đình Việt Nam.” <https://giadinh.bvhttdl.gov.vn/nhung-van-de-dat-ra-ve-chinh-sach-phap-luat-doi-voi-van-hoa-gia-dinh-viet-nam/> (검색일: 2024. 11. 30).
-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가족국(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 Vụ Gia Đình). “Quan điểm của Đảng, cơ chế chính sách của Nhà nước về gia đình.” <https://giadinh.bvhttdl.gov.vn/quan-diem-cua-dang-co-che-chinh-sach-cua-nha-nuoc-ve-gia-dinh/> (검색일: 2024. 12. 05).
- 심주형. 2023. “베트남 가족 문화 전통의 재발명과 도이 머이(Đổi mới) 2.0 문화가족(Gia đình Văn hoá) 정책을 중심으로.” 신재혁 엮음. 『베트남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Pp.94-11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 연구총서 제1권.
- 왕혜숙·백용훈·류석춘. 2011.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사회자본 비교: 퍼트남의 이탈리아 해석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1(3): 43-103.
- 한수진, 나기환. 2015. “신입사원의 사회적 비공식 / 공식 네트워크가 개인의 흡수역량과 학습 전이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8(7): 1835-1857.
- Abbott, Stephen and Della Freeth. 2008. “Social capital and health: starting

- to make sense of the role of 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 *J Health Psychol* 13(7): 874-883.
- Bảo Ngọc. 2024. “Thu nhập của người dân Hà Nội, TP.HCM tăng ra sao trong hơn 10 năm qua.” *Tuổi Trẻ* Apr. 19, <https://tuoitre.vn/thu-nhap-cua-nguoi-dan-ha-noi-tp-hcm-tang-ra-sao-trong-hon-10-nam-qua-20240419112824854.htm>.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Westport: Greenwood.
- Cleaver, Frances. 2005. “The inequality of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chronic poverty.” *World Development* 33(6): 893-906.
- Dalton, Russell. J. and Nhu-Ngoc. T. Ong. 2005.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Vietnam.”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in Vietnam*.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 Delhey, Jan and Kenneth Newton.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Delhey, Jan and Christian Welzel. 2012. “Generalizing trust: How outgroup-trust grows beyond ingroup-trust.” *World Values Research* 5(3): 46-69.
- Dragolov, Georgi, Jan Delhey, and Klaus Boehnke. 2018. *Social cohesion and well-being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2005.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47.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 2007.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51.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 2015a.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57.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 2015b.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64.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 2016. Văn kiện Đảng toàn tập, tập 60.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Đinh, Thị Khánh Hà and Nguyễn, Đoàn Hạnh Dung. 2021. “Mối Liên Hệ giữa Vốn Xã Hội và sự Tham Gia của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vào Phát Triển Du Lịch: Trường Hợp Xã Thủy Thanh, Tỉnh Thừa Thiên Huế.” *Tạp chí Khoa học Đại học Huế: Kinh tế và Phát triển* 130(5C): 39-54.
- Đỗ Thị Hiện. 2021. “Vốn Xã Hội và Vấn Đề Nâng Cao Vốn Xã Hội trong Giáo Dục Đại Học ở Việt Nam Hiện Nay.” *Tạp chí Khoa học và Công nghệ* 53A: 123-130.
- Fukuyama, Francis. 1996. *Trust*. The Free Press.
- .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Glanville, Jennifer L., Matthew A. Andersson and Pamela Paxton. 2013. “Do Social Connections Create Trust? An Examination Using New Longitudinal Data.” *Social Forces* 92: 545-562.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Kawachi, Ichiro, Bruce P. Kennedy, and Roberta Glass. 1998.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A contextu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8): 1187-1193.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vol 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 Ngọc Hùng. 2008. “Vốn Xã Hội, Vốn Con Người và Mạng Lưới Xã

- Hội qua Một Số Nghiên Cứu ở Việt Nam.” *Tạp Chí Nghiên Cứu Con Người* 4(37): 45-54.
- Lê, Thị Thùy Linh and Nguyễn Thị Thùy Giang. “Văn hóa gia đình Việt Nam truyền thống trong phát triển nhân cách quân nhân.” *Tạp Chí Cộng Sản* Apr. 15,
https://www.tapchicongsan.org.vn/web/guest/van_hoa_xa_hoi/-/2018/827293/van-hoa-gia-dinh-viet-nam-truyen-thong-trong-phat-trien-nhan-cach-quan-nhan.aspx
- Luhmann, Niklas. 2018. *Trust and power*. John Wiley & Sons.
- Newton, Kenneth.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Nguyen Huu An and Le Duy Mai Phuong 2021. “Social Capital in Vietnam: An Analysis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Trust.” *Journal of Mekong Societies* 17(2): 1-27.
- Nguyen Tuấn Anh. 2011. “Vốn Xã Hội và Mấy Vấn Đề Đặt Ra trong Nghiên Cứu Vốn Xã Hội ở Việt Nam Hiện Nay.” *Tạp Chí Xã Hội Học* 3(115): 9-17.
- Nguyễn Thị Hương Giang. 2019. “Vai Trò của Vốn Xã Hội trong Hoạt Động Khoa Học và Công Nghệ của Các Nhóm Nghiên Cứu.” *Tạp chí Khoa học và Công nghệ Việt Nam* 8(1): 32-42.
- Nguyễn Thị Quý. 2020. “Vốn Xã Hội và Hiệu Quả Hoạt Động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Trường Hợp Các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ở Việt Nam.” *Tạp chí Nghiên cứu Tài chính – Marketing* 55: 37-48.
- Nhân Dân. 2022. “Kinh tế Hà Nội năm 2022 tăng trưởng 8,89%.” Dec, 28.
<https://nhandan.vn/kinh-te-ha-noi-nam-2022-tang-truong-889-post732203.html>.
- Peng, Yusheng. 2004. “Kinship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China’s

- transitional econom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1045–1074.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Son, Joonmo and Nan Lin. 2008. “Social Capital and Civic Action: A Network-based Approach.” *Social Science Research* 37(1): 330-349.
- Szreter, Simon and Michael Woolcock. 2004. “Health by Association? Social Capital,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50-667.
- Thayer, Carlyle. 2008. “One-Party Rule and the challenge of civil society in Vietnam.” In *Remaking the Vietnamese State: Implications for Viet Nam and the region*, Vietnam Workshop. August 21-22 2008.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Thanh Giang. 2023. “Ngày Gia đình Việt Nam 28/6: Trân trọng, giữ gìn giá trị văn hóa tốt đẹp của gia đình.” *Chính Sách & Cuộc Sống*, Jun 27, <https://chinh sach cuoc song.vnanet.vn/ngay-gia-dinh-viet-nam-28-6-tran-trong-giu-gin-gia-tri-van-hoa-tot-dep-cua-gia-dinh/20497.html>.
- Trần Hiền. 2024. “Phát huy giá trị văn hóa gia đình Việt Nam trong tình hình hiện nay.” *Đảng Bộ Thành Phố Hồ Chí Minh*. Jun. 24, <https://www.hcmcpv.org.vn/tin-tuc/phat-huy-gia-tri-van-hoa-gia-dinh-viet-nam-tong-tinh-hinh-hien-nay-1491924124>.
- Tran Nhuan Kien and Yoon Heo. 2008. “Doi Moi Policy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1986–2005.” *International Area Review* 11(1): 205-232. <https://doi.org/10.1177/223386590801100112>.
- Trần Tiến Quang, Dương Thế Duy, Nguyễn Thị Xuân Lan, and Trần Thanh Tú. 2023. “Mối Quan Hệ giữa Vốn Xã Hội, Chia Sẻ Trị Thức và

Khả Năng Đổi Mới Đối Với Nhân Viên Khối Văn Phòng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HUFLIT Journal of Science* 7(3): 43-57.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Zhang, Xiaobo and Guo Li. 2003. “Does guanxi matter to nonfarm
employm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1(2): 315-331

Zucker, Lynne.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Changing Social Capital in Vietnam: Strengthening Family Values and In-group Trust

BEAK Yong-Hun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in Hanoi and Ho Chi Minh City, two cities representing the North and South of Vietnam, using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WVS) 5th (2006) and 7th (2020) using chi-square tests and T-tes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amily values and in-group trust have been strengthened in Vietnam. In terms of social networks, Vietnamese people still consider family-centered informal ties to be the most important, while formal ties involving membership in various organizations have decreased. In terms of trust, in-group trust, especially trust in family, was found to be higher than out-group trust. Comparing the two cities, Hanoi has a higher level of out-group trust than Ho Chi Minh City, but in Ho Chi Minh City, trust in people met for the first time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explains that family valu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cultural awarenes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party and state policies, laws, and directives in Vietnam, and that the role of the cultural family movement has been important in this process.

Keywords: Vietnam, Social Relationship, Trust, Family

